

이렇게 들었다

자원활동가 구름

“누구든 인권 보호권리”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람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회임경>

온갖 중생도 다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온갖 사람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성자들도 진여를 지니고 있으며, 미국에 이르러도 진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미경>

최근 북한 공안요원들이 중국 내 조선족 교회를 습격, 탈북자들을 대거 검거해 북한으로 송환하는 등 탈북자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 공안요원들은 북한 실상을 증언하고 있던 어린이들까지 강제로 끌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중국 당국도 북한 공안요원들의 탈북자 체포에 적극 협조하면서 직접 체포한 탈북자를 북한에 넘겨주는 등 탈북 주민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은 북한난민을 돕는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탈북자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의 법륜스님은 지난 1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좋은 벗들 소속 자원활동가 4명 등 한국인 6명이 중국 지린성 국가안전청에 체포돼 50여 일간 불법 구금당한 채 ‘간첩 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처님 시대에도 불평등은 존재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없었지만 당시의 신분제도, 부처님은 신분적 억압에 신음하는 인도인들에게 평등을 선언하고 품소 실천했다. 출신에 관계없이 교단에서는 누구나 평등했고, 인권을 보호받았다.

탈북 난민들은 따지고 보면 모두가 한 핏줄이다. 같은 동포라서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그렇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온갖 중생은 무시(無始) 이래 생사 속에 있으면서 윤회를 계속해 온 터이므로, 일찍이 부모·형제·부부·권속·친구 등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던 중생이란 존재치 않는다”고 하셨다. 북한과 중국 당국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를 촉구한다.

한영우 기자

“악성비구는 침묵으로 대처하라”

반론문

선각 스님

해인사 선원 열중

지난호(323호) 9면에 게재된 수경스님의 기고문 ‘자은·성철스님의 죽음을 곡한다’에 대해 해인사 선원 열중소임을 맡고 있는 선각스님이 22일 반론문을 보내왔다. 선각스님은 83년 해인사로 출가하여 봉암사 등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하였으며, 해인사방장법전신사 회상에서 참선공부를 하였다. <편지자>

일찍이 부처님께서 “말세에 악한 성품을 가진 비구가 나타나거든 침묵으로 상대하지 말라”고 후학들에게 당부하였다. 그래서 해인사는 한국불교의 증가(宗家)답게 묵빈대처해 왔다(실상사 방문전은 차후에 해명하겠다). 하지만 ‘자은·성철스님의 죽음을 곡한다’는 수경스님의 글은 그 불사의 ‘불가(不可)함’을 논하면서 상당한 오해와 함께 논리비약이라는 자기당착에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자은스님 유지따라

해인불교 문화단지

마스터플랜 추진

첫째, 사자는 토끼새끼를 낳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자는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토끼새끼를 낳을 수 없다. 그러나 사자가 낳은 사자새끼 가운데에는 사자다운 웅망한 기상을 가진 새끼가 있는가 하면 토끼같이 겁많은 성격 가진 새끼를 낳을 수도 있다. 또 많이 낳다가 보면 흠뻑이 될 줄 아는 새끼가 여러마리 우뚝 솟아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성향의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웅망한 어미사자를 토끼나 개라고 이야기한다면 되겠는가? 후학이 못나면 그 모든 것이 스승의 허물인가? 그런 식이라면 그 허물의 마지막은 부처님까지 올라가야 한다. 자은·성철(영암스님 포함) 스님은 오늘 해인종림이 있게 하신 분들이다. 그래서 해인사 대중에게 그분들은 조사(祖師)이다. 그런 큰 스님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좋은가? 허물이 있다면 현재 대중의 경색에 그칠 일이지 큰스님의 허물로 들릴 일 아니다.

그렇다면 덕승문중인 수경스님은 수덕사 현재 대중의 허물로 경허·만공스님을 이렇게 내칠 수 있는지를 묻고 싶다.

둘째, 자은스님은 이 불사를 발원하신 스님이다. 모시던 상좌에 의하면 70세 무렵까지도 ‘내가 십년만 젊어도 이 불사를 시작할텐데’라고 하는 바람을

버리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한 뜻을 받들어 1944년에 허려사터에 지어진 초등학교를 89년에 옮기도록 하였으며 96년에는 ‘해인불교문화단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고 1차적으로 박물관을 짓게 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은 총림 임회 대중의 논의를 거쳤다. 회의 내용 기록과 자필 서명이 현재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정연이 도래하여 부처님을 모시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이왕 모시는 김에 부처님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크고 훌륭한 불상을 모시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를 꼭 속물주의, 몰랑주의로 볼 수 밖에 없는가? 또 그런 소리를 같은 종단의 승려로부터 이렇게까지 매도되어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

셋째, 장사경장(長沙景考? ~868스님)은 ‘정법(正法)대로 한다면 법당 앞에 풀이 높이 자랄 것’이라고 했다. 원칙대로만 한다면 사찰에 대중이 없어 풀조차도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것이다.

자은 성철 스님, 그리고 산중의 어른 스님들이 정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많은 대중의 근기를 헤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편과 정법을 혼동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눈 어두운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안목이라면 그런 안목을 쓰게 통에다가 집어 넣어 가지 방편을 쓴 스님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일도 아니다. 실불살조(殺佛殺祖)가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된 눈과 귀부터 죽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절집안의 법도가 아무리 땅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수좌 30년의 이력을 가진 신망받는 중진 수경스님께서 이 정도로 무례하리만치 간절한 글을 쓰려고 한다면 먼저 대불조상의 배경과 취지, 불사추진의 연혁과 큰스님의 유훈에 대한 확인 등 글을 전개하기 위한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했다. 그리고 정말 해인사를 아끼다면 먼저 찾아와서 어른들께 불사의 부당함을 건의하고 그래도 여의치 못하다면 언



론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겠다고 하는 것이 수순이다. 하지만 그런 과정은 전혀 없었다. 절집의 질서와 법도를 너무 무시했다. 후배들이 보고서 무엇을 배우겠는가?

그리고 매년 절집안 문제를 세속 언론에 끌고 나가서 그들의 흥미거리를 제공해주고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챙겨온 습관이 이제 완전히 몸에 배어 버렸다. 지금도 그런 작태는 계속 진행 중이다. 절집안을 팔아서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탐하는 것이 과연 같은 사상을 가진 중도인 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충분히 국민(우상)을 반대자 포함을 등원해서 반대할 것이라는 발상이 가능한 것이다. 저번의 사상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해종(海宗)행위가 달리 해종이겠는가? 이보다 더한 해종행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설사 백년 양보해서 자기 자리가 더럽다고 해서 밀지리까지 파버리면 자기도 허공에 떠 있을 수 밖에 없다. 수경스님의 사회적 영향력은 개인 의 힘이 아니라 조계종 승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섯째, 불상은 아무 허물이 없다. 불상 그 자체는 성물(聖物)도 아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성물도 될 수 있고 속물도 될 수 있다. 육근(六根)은 도적인 동시에 보배인 것과 같이 화려하고 큰 불상이 속물주의의 상징일 수도 있고 신심을 일으키는 성상(聖像)일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인사이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해인사이기 때문에 속물(俗物)이라는 저번의 인식을 성물(聖物)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은 왜 할 수 없는가? 육근이 보배가 되느냐, 도적이 되느냐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달렸듯이 속물이나 성물이나 하는 것은 각자의 관점에 달려있는 것이지 성상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사람은 각각 가치관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입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아집이요, 독선인 것이며 또 다른 한 형태의 업(業)일 뿐이다. 해인사 참배객들의 의지처럼, 기도처가 될 대불조상을 반대할 것 아니냐 창조적인 성물이 되기 위한 신앙적 방향과 믿음과 실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지도하는 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입이 금구(金口)요, 입을 통해 천상 빛을 담은 긍정적인 효과는 무시하고, 구시화문(口是禍門)인 입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또다른 변견(變見, 극단론)이다. 해인사가 대불(大佛)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신행·문화센터로 재가불자의 신행요리를 위한 공간 확보 계획도 함께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없었는가?

여섯째, 대불을 반대하면 선(善)이

반대하면 좋지요

침묵하면 무사안일

마왕파손의 소리

요, 침묵하면 무사안일이라는 흑백논리는 ‘환경종(環境宗)에게 해당되는 말이 조계종까지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대불을 반대하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찬성하면 무책임한, 혹은 죽은 의식을 가진 것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부처님 출현을 반대하는 것은 마왕파손이나 하는 소리지 어찌 조계종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살불살조(殺佛殺祖)는 경지에 이른 깨친 사람이나 하는 소리지 중생범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어린애한테 칼을 쥐어 주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허물을 자인하고 수경스님은 해인사 대중과 자은·성철 스님께 해명과 아울러 참회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과보를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자기 입이라고 마음대로 날벼락치는 진짜 토끼새끼인 방계(傍系) 파과라치의 글에 정통적 불교주류(主流)는 현혹되지 않겠지만 ‘혹시나’ 하고 근심이 되어 악성비구에게 끝까지 침묵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를 부처님께 참회해야겠다. 못한 제자들 때문에 스승에게 누를 끼친 허물도 함께. 정말 수경스님의 글을 곡(哭)하노라.

\*이 난의 내용은 현대불교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해인사 대불 말, 말, 말

○...세속인들이 장대한 불사를 원한다해도 만류하고 삼가하여 청정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여야 하지, 누군가가 70억원을 시주하였다 하여 거대불상으로 세계불교의 중심이 되겠다는 것은 세계적 보물인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에 어울리지 않는다. <한겨레=동양최대>

○...지금 우리 불교계에 절이 모자람니까? 범종이 모자람니까? 대불이 모자람니까? 지금 이 땅에는 부처님을 따르는 청소년들이 씨가 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불교의 심각한 현실입니다. 제발 정신차리고 화급하게 전법 불사에 나서지 아니하면 우리 불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조계종=화들짝>

○...세계 최대 불상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비판이 있듯이, 그것 때문에 불상조성자체가 반대 여론에 밀려 조성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세계 최대가 비판이 된다면 조금 작게라도 조성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종 홈페이지=무명초>

○...시주님, 시주를 잘못하시었소. 그 돈으로 장애아나 지적장애아,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으면 후세에 길이길이 이름이 남을 텐데... <중앙일보=바리밀다>

○...어떻게 선방수좌들이 결계철에 산문을 박차고 나갈 수가 있던 말인가? 조계종이 지금까지 버텨온 힘이 무엇인가? 이제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절망감이 엄습한다. <불교정보센터=삼천리>

○...회두선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도 깊이 고민하고, 이번 문제를 일으킨 수좌들이 회두를 제대로 듣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면 제대로 지도하고 안내하여 한국 간화선의 진면목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불교정보센터=뱀뿔>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말로써 해결하는 것은 이제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코흘리개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참선을 오래 하셔서 몸이 꽤나 지푸뚱하셔서 몸 풀 때라도 찾으셨습니까? <해인사=홍진성>

○...인제불사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 불자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급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법포교야말로 부처님께서 지금 이 땅의 불자들에게 명하시는 가장 급한 불사입니다. <조계종=일행>

○...과연 이 땅에 참된 불자들은 살아 계신가 봅니다. ‘공양거부운동’에 지금 많은 불자들의 공감을 얻고, 번져 가고 있습니다. 이 공양거부운동을 통해 진정한 경중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불교정보센터=합장주>



▲갈월사 경내



정문 ▼

갈월사 영탑(靈塔)

윤달에 조상에게 효도를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 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만들어 졌으며 사방이 우거진 울창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된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윤달에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들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권을 드립니다.

조성된 영탑 ▼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미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은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치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집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 문의: 031)774-7374, 771-9577, 772-190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갈월사
▶ 홈페이지: http://www.galwolsa.bz.co.kr